

# 곡성군 “어르신 주치의 신청하세요”

### 곡성형 마을 주치의 제도 시행 의사 5명·간호사 4명 진료팀 취약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역할

# 3월 중 어느 날, 곡성군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80대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살펴달라는 자녀의 부탁이 접수됐다. 이에 방문팀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어르신의 상태를 살핀 후 방문 결과에 대해 자녀에 통보했다. 곡성군이 지난 3월부터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곡성형 마을 주치의 제도’의 한 사례이다. ‘마

을 주치의 제도’는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의료진이 방문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이 제도는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만족도에 대해 도내 지자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를 위해 곡성군 보건의료원은 의사 5명과 간호사 4명으로 진료 방문팀을 구성했으며, 이중 간호사들은 상담을 통해 방문진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군에 방문 진료를 신청하면, 관계자들이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진이 방문하게 된다. 이후 방문보건팀과 의료진은 정기적인 사례 회의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시행해 사업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지난 1개월 동안 신청은 총 35건에 달하며, 방문 진료는 아직까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대상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의미와 시행 방안을 더 많은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곡성=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 광양시 철강산업 위기대응 본격 나섰다

### 전남도·순천시와 협의체 발족

광양시가 지난 3일 전라남도·순천시와 함께 광양만권소재부품제조산업센터에서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발족식(사진)을 갖고, 광양만권 철강산업의 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협의체는 미국의 철강 고율관세(25%) 부과, 중국의 기술력 강화와 저가 공세, 국내 철강 수요산업의 침체 등 복합적인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광양시를 비롯해 전라남도, 순천시,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정치권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 협의체는 박찬환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위원장,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 정광현 순천시 부시장, 소영호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현대제철(주)·동아스틸(주)·㈜SNNC·한화오션에코텍(주)·㈜성원·중앙이엠씨(주)·티와이파우더리(주)· ㈜메가플

랜텍 등 철강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도·시의회의원 등 총 28명이 참여해 ▲철강산업 위기대응 정책자문과 정부 공동 건의 ▲기업 애로사항·규제발굴 ▲신규사업 발굴·제안 ▲강연·세미나 공동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2025년 4월부터 철강산업 위기 종료시까지 운영되며, 정기회의는 격월로,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는 유연한 체계를 통해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발족식은 ▲위기대응 협의체 발족 경과 보고 ▲국내외 산업동향, 전망 및 수요조사 결과 발표 ▲위기대응 전략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과보고에서는 트럼프2기 행정부의 철강 고율관세 부과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라, 광양만권 철강산업이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라남도·광양시, 순천시가 공동으로 민관 협의체 구성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추진 과정이 상세히 소개됐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광양 망덕포구 감동정원에 ‘인공 달’ 떴다

### 꽃·달·별·벤치·경관조명 설치 신비로운 야경경관 포토존 인기

광양시 망덕포구 시민감동정원에 등 십과 낭만이 있는 경관 조명이 설치돼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족과 운동주 시정원의 중간 지점에 설치된 경관 조명은 원형의 꽃밭 한가운데 군데군데 크레이터로 움푹 파인 회색의 보름달을 표현했다. 또한 420개의 꽃 조형물이 둥근 달을 에워싸고 있으며, 별 모양이 타공된 정육면체 상자 2개와 백색의 벤치가 조화롭게 놓여있어 여행자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한다. 특히 일몰 이후에는 달과 별, 꽃과 벤치까지 일제히 신비로운 야경경관을 연출해 지나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인증샷을 남기는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개장한 액티비티 광양 쟁와 이어 ‘섬진강 별빛 스카이’에 이어 새롭게 탄생한 경관 조명이 망덕포구의 감성과 낭만을 한층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망덕포구 시민감



광양시 진월면 시민감동정원에 설치된 경관 조명.

동정원에 설치된 경관 조명은 달과 별 등 운동주의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연상시키는 낭만적인 소재를 선정해 감성적으로 구현했다”면서 “벤치에 앉아 여행의 피로를 풀면서 암울했던 시대에 등불 같은 시를 썼던 운동주의 시정신을 떠올려 보고 멋진 인생 사진도 남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한편, 배알도와 망덕포구 일대는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 ‘섬진강 속 빛나는 운동주의 별빛 아일랜드’, 문체부 ‘남부권 관광관광 개발계획’의 일환인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백두대간 최남단 최대 캠핑단지 조성 등 전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한 대규모 종합관광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보성군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550명 선발

(재)보성군장학재단이 오는 15일까지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장학생 선발 분야는 ▲성적 우수 95명 ▲미래인재 68명 ▲희망나래 16명 ▲보급자리 63명 ▲한울타리 35명 등 12개 분야이며, 총 550명을 선발해 4억 2,7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친권자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며,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타 지역 주소를 두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새싹키움 장학금’이 신설돼 관내 초등학생 100명에게 학습 환경 조성과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구례군민의 상에 장용갑 전 향우회장 선정

올해의 구례군민상 수상자에 재경 구례군향우회장을 역임한 장용갑(76·사진) 씨가 선정 됐다. 구례군민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구례군수 김순호)는 지난 2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참석 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토지면 출신 장용갑 전임 재경 구례군향우회장(1999년부터 6년간 역임)을 교육·문화·체육 부문 ‘2025 구례군민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장 전 회장은 평소 고향에 큰 애정을 쏟아 왔으며 특히 후배들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구례중학교를 비롯하여 전남자연과학고(전 구례농업고)·구례여중·구례고 등에 2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또 구례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인 재경 구례학사 설립과 이전에도 크

게 기여했다. 아울러 학사 운영을 위해 7000여만원의 장학금도 쾌척했다. 그는 매년 1억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2020년 구례 대흥수 때도 3000여만원을 성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장 전회장은 서울에서 오랫동안 (주)화원약품을 설립 경영해 왔으며, 고향인 구례에서 구례중학교와 구례농업고를 졸업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구례군민의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봄꽃 활짝 핀 4월, 고흥으로 오세요

### 쑥섬·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추천

“봄꽃 만개 고흥으로 오세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고흥 쑥섬과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이 산중객을 유혹하고 있다. 쑥섬은 전남도 1호 민간 정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섬으로, 300여 종의 다양한 꽃을 만날 수 있어 꽃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특히 봄철, 다채로운 꽃들 사이에서 고흥한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다. 쑥섬은 ‘고양이 섬’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섬 곳곳을 거니는 고양이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자연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자연이 만든 400년 된 난대림과 마을주민이 직접 손으로 가꾼 해상정원이 조화를 이루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매력을 자랑한다.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은 해변 캠핑장,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특

히, 저녁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봄이 되면 고흥만 일대의 4km의 벚꽃 터널과 유채꽃 군락이 고흥만 방조제를 따라 만개해, 꽃구경 명소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물론 연인들에게도 훌륭한 여행지로 손꼽히며, 따뜻한 햇살 속에서 꽃길을 걸으며 평온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장소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명소들이 여행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라며 “따뜻한 봄날,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요한 풍경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봄을 만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